

## 충청권 경제발전과 충남의 항만·물류체계

김광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전략팀장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 혁신 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충남권의 항만 물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남지역은 신행정수도 건설 및 국토 균형 발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행정·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연기·공주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5월에 시행령이 발효되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 및 연계 교통망 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연고산업을 고려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충청남도의 낙후된 산악내륙지역의 경제 발전 및 인구유입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충남권 환경변화와 산업구조에 적합한 항만 물류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충남권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물류 인프라 확충(서해안고속도로,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수도권

의 산업기능이 충남의 북부지역인 아산시, 천안시, 서산시 등으로 흡수되고 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입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원유, 석유제품 등의 생산지이며 수요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충남의 반도체 수출규모는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산 탕정지역이 제2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되면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의 수출입 물류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출은 항공수송이 필요한 화물과 전용부두가 필요한 화물이, 수입은 대량벌크화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임해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출입 물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내륙물류 체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충청권 수출입 화물의 물류 특성에 맞게 항만과 생산지간의 물류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

되었다.

일본의 지자체별 항만 개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지역거점항만 개발이 화물 물동량을 창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동북아 물류체계에 편승할 수 있는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항만이 필요하며, 대내적으로는 지역 전략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지역 항만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에 환황해권 중심의 지역 거점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청권 주변 지역 화물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교통물류 인프라(타 권역과 항만과의 연계 도로 등)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석문·고대 등의 산업단지에 컨테이너화물 창출이 가능한 가공 조립 및 소비재 관련 기업이 입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산업구조가 현재 수도권권과 같은 3차산업 중심체제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단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충청남도의 현재와 미래의 변화 패턴 및 특징을 파악하여 각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항만개발 및 물류체계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